

애향장학재단 · 인재 양성 장학금 1억원 지원

전북은행, 총 34년간 17억5000만원 장학기금 전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따뜻한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은행은 전북애향장학재단(이사장 윤석정)과 함께 4월 1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5학년도 전북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전북은행은 지역 출신의 우수 대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장학 사업을 지속해왔다. 1992년부터 올해까지 34년 동안 전북애향장학재단에 총 17억 5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장학생 규모를 확대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전북은행은 전북애향장학재단과 함께 2025학년도 전북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윤석정 전북애향장학재단 이사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전북애향장학재단 이사 및 장학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석정 이사장은 "매년 엄격한 심사

를 통해 신입 대학생과 B학점 이상을 유지한 재학생들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장학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온 전북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들이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 인재에 지원하며, 모두에게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전북은행의 지속적인 장학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평가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투자자 유스업파트너스(주) 최승원 대표(좌측)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 GTL 배준 대표(우측)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업진단 컨설팅 · IR 피칭 클리닉

탄소산업진흥원, '투자유치 패스트트랙 IR 데모데이' 개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7일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 '투자유치 패스트 트랙 IR 데모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 참여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창업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IR(Investor Relations) 발표를 통해 사업의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증받을 수 있는 자리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대표(좌측)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 GTL 배준 대표(우측)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활성화실 박종구 실장은 "이번 행사가 유망 창업 기업과 투자자 간의 의미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진흥원이 보유한 우수한 기반시설과 오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창업 기업들에 아낌없는 지원과 프로그램 기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약 3개월 간의 △기업진단 컨설팅, △IR 투자유치 클리닉 과정을 거쳐 선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평가의견을 청취하고 투자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창업도약 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번 투자유치 행사에서 도심향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활성화실 박종구 실장은 "이번 행사가 유망 창업 기업과 투자자 간의 의미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진흥원이 보유한 우수한 기반시설과 오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창업 기업들에 아낌없는 지원과 프로그램 기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농협, 현장 방문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일손돕기 실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1일 정읍시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화마로 인해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지난달 25일 고창군 성내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접한 정읍시 소성면 화동리 금동마을을 덮치며 주택 13채와 창고 6동, 비닐하우스 9동 등 총 28동과 임야 4ha를 소실하여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전북농협은 지난 26일에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재해 구호키트 및 생수, 라면 등 생필품을 선 지원하였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지난 26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인데 많이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전북농협은 화마로 인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전북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01곳 대상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4월부터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01곳을 대상으로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사업장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이며, 415종의 화학물질을 기준 수량 이상 취급하면서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I그룹은

벤젠 등 20종이며 연간 1톤 이상, II그룹은 에틸렌 등 395종이며 연간 10톤 이상이다.

해당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에 접속해 2024년 한 해 동안의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되어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 '화관법' 민원24'은 2025년부터 기존의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서비스'의 작성·제출 사이트가 변경된 명칭이다.

특히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일 전북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합교육은 전북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공대8호관 205호(2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 담당자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를 듣거나,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김옥기기자

새만금청 · 새만금공사 등, 제80회 식목일 기념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 개최

새만금개발청 등 3개 유관기관에서 왕벚나무와 팽나무를 식재하는 식목일 행사를 추진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일원에서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등 주요 간부를 포함한 80여 명의 직원들이 참



여해 팽나무, 왕벚나무 등 100여 주를 심었다. 행사가 진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은 국내 유일의 국립간척박물관으로, 현재 기획전시 '땅·쌀·삶: 계화도 간척사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연장 전시되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개관 후 처음으로 진행된 식목일 행사이자, 박물관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 기관이 합심하여 추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만호 기자

중기중앙회, 지역 산불 피해자 신속 지원

피해지역 노란우산 · 공제기금 가입자에 공제금 대출 등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번 울산·경북·경남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 신속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노란우산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시 사회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이다.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부금납부를 6개월 유예 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시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p 인하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